월드스타 '인간새' 우상혁 "세계선수권 등 메이저대회 제패 준비 끝!" ▶2면

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www.sportsdonga.com

역대급 투고타저…'0점대 투수' 꿈이 아니다

S존 확대 후 타자들 수싸움 불리…루친스키·반즈·안우진 ERA 0점대

S존 확대에 맞춰 극심한 투고타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1993년 선동열의 0.78을 끝으로 사라진 0점대 ERA 투수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NC 드류 루친스키(0.45), 롯데 찰리 반즈(0.68), 키움 안우진(0.90·왼쪽부터)은 19일 현재 0점대 ERA를 뽐내고 있다. 스포츠동아DB·뉴시스

1점대 ERA 기록중인 투수도 8명이나
SSG·키움·LG·롯데, 팀 ERA 2점대
팀 타율 0.250 이상은 4팀에 불과
0점대 ERA…'제2 선동열' 탄생 주목

스트라이크(S)존 확대와 더불어 막이 오른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는 역대급 '투고타저' 시대를 맞을 수 있다는 예상 속에 초반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극심한 투고타저 양상이 이미 일정 부분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다.

18일까지 팀당 14경기 정도씩 치른 가운데 10개 구단 중 4팀(SSG 랜더스, 키움 히어로즈, LG 트윈스, 롯데 자이언츠)은 2점대의 팀 평균자책점(ERA)을 기록 중이다. 팀 타율의 경우 0.250 이상은 4팀(SSG, 롯데, LG, 두산 베어스)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점대 팀 ERA는 두산이 유일했고, 팀 타율에선 6팀이 0.250을 넘겼다.

투고타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는 투수 개개인의 ERA다. 각 팀 선발투수들의 ERA가 대폭 낮아졌다. 아직 등판 횟수가 3, 4경기에 불과하지만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NC 다이노스 드류 루친스키(0.45)를 필두로 롯데 찰리 반즈(0.68), 키움 안우진(0.90) 등 0점대 ERA를 자랑하는 투수가 3명이나 된다. 1점대 ERA를 기록 중인 투수들도 8명이나 될 정도로 투수들이 타자들을 압도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정상화'로도 표현되는 S존의 확대 이후 타자들은 타석에서 적극적으로 배트를 휘두르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기진행속도 역시 약간 빨라졌다. 긍정적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스트라이크-볼 판정을 놓고 아직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심판에게 물어보는 선수들이 적지 않다. 타자들이 체감하는 S존과 심판들이 설정해놓은 S존에 격차가 있다. 지금은 이를 좁혀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선 이러한 투고타저 현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다. 지난해보다 좌우상하 모두 커진 S존에 타자들이 아직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경기를 치를수록 대응력이 향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위 자체만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투수들이 많다기보다는 확대된 S존을 지금은 투수들이 좀더 잘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당분간은 투수들의 강세가 계속될 개연성이 높다. 역대급 팀 ERA와 개인 ERA 기록이 쏟아질 여지는 충분하다. 한 시즌을 0점대 ERA로 마친 투수는 선동열이 유일무이하다. 해태 타이거즈를 넘어 한국야구를 대표하는 '국보투수'로 군림한 그는 1986년(0.99)과 1987년(0.89), 1993년(0.78) 등 3차례나 0점대 ERA을 달성했다. 1993년의 0.78은 여전히 '불멸의 대기록'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5월 '범죄도시2' 개봉…글로벌 활동 본격 시동

마동석이 범죄 액션 영화 '범죄도시2'로 5월 극장가의 구원투수로 등판한다. 사진은 '범죄도시2' 포스터.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마동석 신드롬' 다시한번…

이번엔 15세 관람가…극장가 흥행 호재 기대감
'압구정 리포트'선 귀여운 '마블리' 매력 발산
미국서도 영화·드라마 준비·제작에도 직접 참여

근육질 몸집과 파워에 묘하게 어울리는 매력으로 '마블리'라는 별명을 얻은 배우 마동석(51)이 5월 극장가를 공략하며 다시 한번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과 할리우드를 오가며 글로벌 활동의 시동을 건다.

마동석이 다음 달 주연작 '범죄도시2'를 내놓는다. 2017년 688만 관객을 동원한 '범죄도시'의 후속작이다. 전편에서 범죄조직을 소탕하며 힘이 넘치는 액션연기로 쾌감을 안겨준 그가 이번에도 베트남으로 도주한 용의자를 잡기 위해 나선다. 최귀화·박지환·허동원·하준 등 1편 속 강력반 형사 동료들과 함께 활약하는 그에게 악역 손석구가 대립각을 세운다.

청소년 관람불가였던 1편과 달리 15세 관람가 등급으로 관객 연령대를 넓힐 수 있게 된 마동석이 5월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죄도시2'로 '액션스타'로서 진가를 드러낼 기세라면 또 다른 신작 '압구정 리포트'로는 '마블리'의 귀여운 매력을 담아낸다는 의지다. 서울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성형 비즈니스 이야기를 그리는 코미디영화에서 그는 압구정 토박이 성형외과 사무장 역을 맡는다.

주연은 물론 기획과 제작에까지 참여한 오컬트 액션 영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도 현재 후반작업 중이다. 악마를 사냥하는 어둠의 해결사로 분해 악을 숭배하는 집단과 맞서는 내용을 그린다. 이처럼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엇비슷한 장르영화가 될 '콘크리트 유토피아'로도 색다른 도전에 나선다. 대지진 이후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이병헌·박서준·박보영이 펼치는 1편 이야기 이후 2편 '황야' 편에 출연한다.

지난해 11월 개봉한 '이터널스'로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합류, 할리우드에 첫발은 내디뎠던 마동석은 미국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함께 준비하며 글로벌 활동에도 박차를 가한다. 2019년 주연작 '악인전'의 할리우드 리메이크작, 이서진 주연 OCN 드라마 '트랩'의 현지 시리즈 '더 클럽'의 주연은 물론 제작까지 맡아 프로듀서로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CJ WELLCARE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